

# 마블 히어로들 나섰다... '신작 無' 극장 심폐소생할까



극장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매년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어벤져스' 시리즈부터 '데드풀', '로건' 등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다시 한 번 대형 스크린에 걸린다. 하루 관객 2만 명 안팎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있는 극장의 관객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과 CGV, 롯데시네마 3사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비롯한 마블 영화들을 동시에 재개봉할 예정이다. 메가박스는 '스페이스 히어로 기획전', CGV는 '히어로즈 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며 롯데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3사 동시 재개봉  
코로나19로 어려운 극장이 위기에 디즈니측 협조...공정효과 기대

시네마도 기획전 형식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3사가 함께하는 기획전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 로건' '데드풀' 등 6개 작품을 재상영하는 형식이다. '데드풀'과 '로건'이 15일, '어벤져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23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봉한다.

마블 영화들은 각 극장이 자랑하는 특수 상영관에서 상영된다. CGV의 경우 IMAX, 4DX, 메가박스는 MX관에서 상영된다. 개봉 당시 IMAX나 MX 상영관에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볼 수 있어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기획은 대표적인 마블 영화들의 재개봉을 허락한 디즈니 측의 협조로 가능했다. 한 관계자는 뉴스1에 "극장 측에서 디즈니 측에 기획전을 제안했고, 극장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 디즈니 측이 이를 받아들여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극장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평일 하루 극장을 찾은 관객은 불과 2만 명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 6일에는 1만5725명, 7일에는 1만5429명만이 극장을 찾았다. 하루 약2000명을 동원한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의 여파로 CGV나 메가박스의 일부 극장은 일찌감치 운영을 중단하거나 휴점 상태다.

그 때문에 신작 개봉은 지난 3

월부터 푹 끓인 상태다. 영화 '주디'나 '엽문4: 더 파이널'처럼 과감하게 개봉을 택하는 작품도 없지 않았지만 애초 3월과 4월 기대작으로 여겨졌던 큰 규모의 작품들은 개봉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상태다.

마블 영화들은 극장이 겪고 있는 이 같은 '관객 기근'을 다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블 영화들의 재개봉 소식이 알려지며 기대감을 표하는 예비 관객들이 적지 않다. 마블 '덕후'를 자처하는 한 30대 남성 관객은 뉴스1에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극장을 찾지 않았었지만 MX관에서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가볼까 한다. 평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극장 관계자 역시 "워낙 많은

사랑을 받는 마블 영화라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블 영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는 시기인만큼 극장들은 자리 배치와 방역작업, 손소독제 사용 등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알렸다. 메가박스는 '안심더하기(띠어얏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영관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 중이다. CGV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영관과 로비에 대대적인 방역을 시행했으며, 전 지점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온 상시 체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극장 관계자는 "극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띠어얏기를 의무화 하는 자리 배치부터 손소독제 비치 등 구체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룹 몬스타엑스 출신 원호 "좋은 사람 될 기회줘 감사" 새 출발 심경



그들 몬스타엑스 출신 원호가 홀로서기를 예고한 가운데 팬들에 직접 심경을 전했다.

원호는 지난 10일 자신의 팬카페에 "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다"라며 "마음 아팠던 것들을 제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마음이 가득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있

다. 힘들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라며 "저를 위해 견디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호는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쉬고 싶을 때 조금이나마 될 수 있는 안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저 앞으로도 감사하겠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원호는 지난 3월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말 대마초 흡연 의혹에 휩싸였던 원호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마약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 노주현x노형욱, '뚝바로 살아라' 부자 재회

시트콤 '뚝바로 살아라' 배우 노주현 노형욱이 '아이콘택트'를 통해 20년 만에 한 자리에 뒀다.

13일 오후 9시50분 방송되는 채널A 신개념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서는 약 20년 전 시트콤 '뚝바로 살아라'에 부자 관계로 출연했던 배우 노주현 노형욱이 등장, 20년 만의 눈맞춤을 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노주현과 노형욱의 만남을 바라본 MC 이상민은 놀라워했고 하하는 "20년 만입니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형욱은 이날 먼저 "정말 묻고 싶었어요. 저희가 진짜 친부자인지?"라고 입을 열었고, 노주현은

"족보에 대해선 잘 몰라"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 노형욱은 "그 때 제가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라고 '진실 공방'에 나섰다.

노주현은 "네 캐릭터가 좀 맞는 캐릭터고 써 준 대로 한 거야"라고 말하며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웃음 가득하던 눈맞춤방은 노형욱이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라며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돼서"라는 말을 꺼내면서 심각한 분위기가 됐다. 눈물이 글썽한 노형욱의 표정을 본 노주현은 "내가 내 앞가림 하느라고 챙기지 못했구나"라며 노형욱을 꼭 끌어안아, 이들이 20년 만에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일지를 궁금하게 했다.

## (여자)아이들 전소연, '오 마이 갓'으로 꽃피운 '천재 프로듀서'

팀의 5연속 히트 일귀...강렬한 존재감 드러내



그룹 (여자)아이들 전소연(소연)이 직접 프로듀싱한 '오 마이 갓'(Oh my god)으로 또 한 번 가요계를 강타했다. 이 곡으로 전소연은 팀의 5연속 히트를 일궈내며 프로듀서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일 (여자)아이들은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 트러스트'(I trust)를 발매했다. 전소연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타이틀곡 '오 마이 갓'은 유니크한 콘셉트로 대중을 압도한다. 거부, 혼란, 인정, 당당함의 감정을 겪으며 현실과의 부딪침을 통해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의 서사는 흑백 논리로 양분할 수 없는 사랑의 정이에 대해 말해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전소연을 비롯한 멤버들의 의견이 반영된 콘셉트와 안무 역시 눈에 띈다. 앨범에 앞서 공개된 약마형상을 한 트루 버전, 전사 형상을

한 라이 버전 티저는 '오 마이 갓'이 이야기하고자 한 주제를 잘 표현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본인의 감정을 깨닫는 과정을 표현한 퍼포먼스는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덕분에 '오 마이 갓'은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아이 트러스트'는 전 세계 35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프로듀서 전소연의 도전이 또 한 번 통탄 셈이다.

프로듀서 전소연의 짙은 데뷔 전부터 보였다. 그는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 엠넷 '인퍼티 랩스타 3'에 출연해 뛰어난 작사 실력을 보여주며 '월성부른 나무'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솔로곡 '젤리', '아이들 똥'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해 음악적 재능을 뽐냈다.

전소연은 지난 2018년 (여자)아이들 데뷔하며 더 주도적으로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데뷔 앨범 '아이 엠'(I am) 전곡 작사했으며, 데뷔곡 '라타타'(LATATA)는 작곡, 편곡에도 참여했다. 몸바톤 트랩 장르의 '라타타'는 귀에 꽂히는 음악으로 호응을 얻었고, (여자)아이들은 케이팝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신인의 자작곡으로 데뷔하자마자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이뤄낸 것.

하지만 전소연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선보였다. 그는 하우스 장르를 기반 '한 (-)으로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했다. 대



중적이지 않은 곡이었지만 (여자)아이들은 음악과 콘셉트를 개성 있게 소화했고, 이 역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듬해에도 전소연은 탱고풍의 댄스 팝 '세노리타'(Senorita)와 뉴트로 뽕뽕 '어-오'(Uh-Oh)로 (여자)아이들의 색깔을 만들어냈다.

특히 지난해 참여한 엠넷 '퀸덤'에서 프로듀서 전소연의 진가가 드러났다. '퀸덤'에서 그는 음악 작업은 물론 무대 구성까지 참여했다. 전소연은 1차 경연에서 데뷔곡 '라타타'에 주술사 콘셉트를 입혔다. 미니의 태국어 주문이 더해진 편곡과 신비로운 무대는 이들을 데뷔 1위를 안겼다. 이후 분노와 집착의 감정을 기괴하게 풀어낸 '싫다고 말해'에서는 기승전결이 있는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메이드 했고, 여왕이 싸움과 인내 끝에 왕좌를 차지하는 내용을 담은 '라이언' 무대에서는 이서사를 웅장하게 담아낸 퍼포먼스를 보여줘 극찬을 받았다. 이 모든 게 전

소연의 프로듀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전소연은 과거 뉴스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앨범 콘셉트를 정할 때 우리 의견이 반영된다. 멤버들이 평소 내게 하고 싶은 음악과 콘셉트에 대해 많이 말한다. 나도 곡을 쓸 때도 스타일링이나 콘셉트를 생각하고 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전소연이 (여자)아이들의 콘셉트를 만들어가는 '핵'이라는 의미다. 특히 전소연은 하나의 곡이 성공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고 색다른 장르에 도전해 한계를 깨부순다. 데뷔곡 1위도, 레전드 곡 '라이언'의 탄생도 그런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퀸덤' 이후 대중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소연은 '오 마이 갓'이라는 또 하나의 명곡을 탄생시키며 '천재 프로듀서'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항상 예측을 비껴가 더 기대되는 전소연. 그가 만들어갈 (여자)아이들의 음악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김영희, 11년차 솔로 "스킨십 방법도 있었다"

코미디언 김영희가 '스탠드업'에 출격, 아찔한 연애담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방에 들어갔던 코미디 쇼 '스탠드업'이 오는 14일 오후 11시에 방송을 재개한다. 11년 솔로 경력을 자랑하는 김영희는 이날 "오랜 연애 휴식

스킨십을 하는 방법을 있었다"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김영희는 특히 수위 높은 스킨십 방법에 대해 "입을 벌리고 있으면"이라는 짓궂은 농담으로 객석의 폭소를 자아냈다. 그러면서도 김영희는 "저한테도 뜨거운 사랑이 있

라구요"라고 과거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며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영희는 "허연증 아니 예요!"라고 해명할 만큼 달달했던 연애시절과는 달리 갖은 핑계로 대며 한 달간 잠수를 탔던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몸서리치는 모습을 보여 웃음보를 터뜨렸다. 곱씹을수록 안쓰러운 에피소드에 김영희는 이내 서글픈 미소를 지어보

이며 현장을 대폭소로 물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하면 김영희는 이별 후 남자친구를 만났던 때를 회상, 당시를 실감 나게 재연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서글퍼지는 김영희의 아찔한 연애 스토리는 무엇인지, 관객들을 웃고 울린 현실감 넘치는 상황극은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